

3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 ■ 어린이집 10개 중 6개 평가인증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한 제1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종합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5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09년에 실시한 제1차 평가인증에서 전체 어린이집 33,499개소 중 29,084개소(86.8%)가 인증에 참여하였고, 이 중 20,255개소(60.5%, '10. 3월)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그 동안의 연도별 평가인증 추이를 분석해보면, 평가인증 참여시설과 인증시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2,804개소(신청 4,420개소)에 불과하였던 인증시설이 2009년에는 7,156개소(신청 9,440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하였다.

평가인증 참여 신청 연도별 추이

구분	참여신청소계	참여신청누계	전체대비누계비율
'05(시범실시)	1,089	-	-
'06(1~4기)	4,420	5,509	16.4
'07(1~4기)	6,359	11,868	35.4
'08(1~4기)	7,776	19,644	58.6
'09(1~4기)	9,440	29,084	86.8

구분	인증통과소계	인증통과누계	전체대비누계비율
'05(시범실시)	650	-	-
'06(1~4기)	2,804	3,454	10.3
'07(1~4기)	4,181	7,635	22.8
'08(1~4기)	5,464	13,099	39.1
'09(1~4기)	7,156	20,255	60.5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제2차 평가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제1차에 비해 한층 강화된 제2차 평가인증제도에서는, 달성도가 높은 항목을 조정·통합하는 등 지표의 적절성을 보완하고, 법적 기본사항 확인도 추가하였을 뿐 아니라, 신규인가 1년 미만 보육시설도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전체 보육시설의 70%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예고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6일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중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란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정부에서 정하는 의약품의 상한가격과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차액 70%를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하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와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22조가 개정된다. 입법예고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에 보건복지부로 제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2009년도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평가결과 공표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전국 1,194개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발표하고, 시설 규모별 상위 10%인 119개 우수기관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008년 12월 31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입소시설 중 평가를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급여제공과정 등 5개 대분류영역 총106개의 평가지표에 대하여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평가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번 평가결과 우수기관 공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고시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흡연율, 서남 지역은 낮고 동북지역은 높고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보건소)에서 실시한 '200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참고자료 1,2).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인남성현재흡연율은 시·도간 최대 10.1%, 시·군·구간 최대 30.5%의 차이가 나고, 광주(43.2%), 전북(43.1%), 전남(47.6%)이 낮고, 대구(49.4%), 부산(51.5%), 강원(53.2%), 경북(51.3%), 경남(50.8)과 제주(53.2%)가 높게 나타났다. 성인월간음주율은 시·도간 최대 11.4%, 시·군·구간 최대 31.4%의 차이가 나고, 대전(53.4%), 전북(48.8), 전남(53.4%)이 낮고, 부산(60.2%), 울산(59.1%), 강원(58.9%), 경남(57.8%)이 높게 나타났다.

2008년 주요건강지표 통계와 비교시, 건강행태의 지리적 분포는 변화가 없었고, 지역별로 대부분 표준오차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 다문화가족 부부 간 연령차·학력차 크나,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아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하여 '09년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결혼이민자 15만 4천명을 대상으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전수조사로써, 다문화가족의 종합적인 실태와 국적별, 지역별 현황을 파악해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취업,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 등이다.

○ 주요 결과 요약

(1) (일반현황)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30.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한족 등 기타민족)(27.3%), 베트남(19.5%), 필리핀(6.6%), 일본(4.1%), 캄보디아(2.0%)순이었으며,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및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도 이후 입국자가 54%나 되어 최근 들어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국제결혼비율: ('02) 5.0% → ('03) 8.2% → ('04) 11.2% → ('05) 13.5% → ('06) 11.7% → ('07) 10.9% → ('08) 11.0%

(2) (한국인배우자와의 연령, 학력 차)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과의 연령 차이는 평균 10세로 큰 편이며, 특히 배우자와 연령차이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17.5세,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17세로 컸다. 또한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의 51%가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부부간 교육수준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제상태) 다문화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인 가장 많고(38.4%), 100만원 미만도 21.3%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았다.

(4) (삶의 만족도) 여성 결혼이민자의 57.0%, 남성 결혼이민자의 53.8%가 현재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았으며, 출신국별로 북미·호주·서유럽,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불만족도가 높았다.

(5) (취업) 결혼이민자의 40%가 취업하고 있으며, 어학, 컴퓨터 및 정보통신, 요리 등에 대한 직

업훈련 참여의향이 높았다.

- (6) (가족관계) 부부 중 한쪽 이상이 재혼인 경우가 35%였으며,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등 가족과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아 우리나라의 평균 가족관계 만족도보다 높았다. 각 가족관계별로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배우자 74.8%, 자녀 88.1%, 배우자의 부모 관계 64.8%, 배우자의 형제자매관계 60.1%였음.
- (7) (자녀) 현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 수는 평균 0.9명이었으며 평균추가희망자녀 수는 0.5명이었다. 초등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의 경우 학원비마련, 학습지도(예습 및 복습), 숙제 지도하기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사회생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과 어려운 일을 의논하거나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 한국인과의 교류가 '06년보다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남성, 여성결혼이민자 모두 지역사회봉사활동(65.9%)과 주민으로서 의견 제시(63.5%)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였다.
- (9) (차별경험) 여성결혼이민자의 34.8%, 남성결혼이민자의 52.8%가 한국생활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 (10) (힘든 점 및 복지욕구)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여성결혼이민자는 언어문제(22.5%), 경제문제(21.1%), 자녀문제(14.2%)를, 남성결혼이민자는 경제문제(29.5%), 언어문제(13.6%)를 꼽았다. 또한 자녀양육·학습지원(62.7%), 한국어교육(60.4%), 사회적응교육(51.4%) 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 실명예방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한국실명예방재단(회장 신언항)을 통해 시력 상실이 우려되는 안 질환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령자 2,350만(眼)에게 개안수술비 등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과 의사가 없는 무의촌과 의료접근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60개 지역 노인 12천명에게 무료로 안검진을 실시하며, 앞으로도 안질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60세 이상 노인의 안검진 및 개인수술에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비의 전체 규모는 12.8억 원이며, 백내장에 대해서는 건당 평균 24만원, 망막질환은 평균 10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100명 이상 신청자가 접수된 시·군·구를 우선 선정하여 안과 전문의와 안경사 등으로 구성된 이동검진팀이 무료 안과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우 수술의 시급성, 예후 등을 감안하여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안검진사업에 검진을 희망하는 고령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www.kfpb.org)와 전화(02-718-1102)로 문의하면 내용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건강박람회 2010」 사업설명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 건강박람회 2010 추진기획단과 함께 2010년 3월 9일(화요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u-Health 시대, 내가 디자인하는 건강생활’을 주제로 「건강박람회 2010(Korea Health Fair 2010)」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건강박람회 2010」의 참여를 희망하는 유관 기관·단체 및 기업체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건강박람회 2010」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참여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건강박람회 2010」은 2010년 5월 4일(화)부터 5월 9일(일)까지 6일간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소재)에서 개최된다. 「건강박람회 2010」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다가오는 2010년대를 전망하면서 u-Health 등 선진 건강관리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박람회 및 사업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단체·지자체 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박람회 2010 추진기획단(02-380-8320, www.healthfair2010.c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4월부터 국민연금 2.8% 더 받고, 기초노령연금도 2천원 오른 9만원 수령

□ 보건복지부는 금년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8%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금년 4월부터는 1만4천원(2.8%) 인상된 51만4천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되어 배우자는 월 18,400원, 자녀·부모는 월 12,260원이 지급된다.

* 배우자: 연 214,860원 → 220,870원, 수급대상자 1,408천명

* 자녀·부모: 연 143,220원 → 147,230원, 수급대상자 237천명('10. 2월 기준)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4월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8천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800원에서 14만4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수급 대상자는 약 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